

고려 후기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의 해석과 의미

이준광(李準光)

I. 머리말

II. 범자명 판독과 해석

1. 단독 범자 (현존)
2. 육자대명진언과 기타 진언의 조합
3. 범자체

III. 제작 시기와 용도

1. 제작 시기
2. 용도

IV. 미술사적 의미

1. 고려 밀교문화의 발현
2. 개인적 밀교 확산의 증거
3. 고려 공예품에서의 자리매김

V. 맺음말

리움미술관 학예연구원

주요 논저: "Plantain Designs on Goryeo Celadon, How They Developed, and What They Meant,"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2021); 「개성 靈通寺址: 출토 청자 연구」 『한국중세고고학』 4(2018)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청자에는 불교문화의 여러 단면이 담겨 있다. 그중 범자(梵字)가 새겨진 상감청자는 불교 중에서도 밀교와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을 것이란 점은 익히 알려져 왔으나 판독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전하고 있는 자료의 수가 적은 데다 잔존 범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이루어진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자료들을 판독하여 기존 자료들도 몇 가지 유형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범자 판독과 해석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자에 상감된 범자는 진언(眞言)을 이루는 글자들이었다. 범자 한 자만 남아 있는 경우 해석을 유보해야 했지만, 그 밖의 범자들은 동심원 구조인 자륜진언(字輪眞言) 방식 속에서 ‘정법계진언’, ‘육자대명진언’, ‘감로수진언’, ‘보루각진언’, ‘구보살원주’, ‘무량수여래심주’, ‘멸악취진언’을 표기하고 있었음을 판독했다. 각 진언은 싯담(悉曇, Siddham) 범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둘째, 제작 시기는 범자 배치 방식과 ‘감로수진언’이 40수 진언에 포함되는 양상을 근거로 13~14 세기에 걸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진언이 있는 동심원 구조의 상감청자 자료들은 제작 특징을 보아 13세기 말~14세기 전반으로 편년했다.

셋째, 상감된 진언들의 해석을 통해 모두 파지옥(破地獄)과 정토왕생(淨土往生)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를 근거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 중 일부는 시아귀회(施餓鬼會)와 같은 망자(亡者)를 위한 불교 의례에 사용했으리라 판단했다. 또한 사당리 23호 요지와 ‘가’구역이 왕실용 자기 생산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례 또한 왕실 혹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넷째,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원대 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원의 불교문화와 고려가 이미 품고 있던 밀교적 요소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고려 후기 사회에 퍼져 있던 개인적 밀교 의례의 한 측면을 보여 주는 자료였다. 당장의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 데서 촉발된 밀교의 변화는 묘지(墓誌), 관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파지옥과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섯째, 다른 공예품과 비교할 때 공통점으로 싯담 범자를 사용했다는 점,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활용했다는 점, 기와와 배치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 범종·목관·묘지의 진언과 의미상 상통한다는 점이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멸악취진언’과 ‘감로수진언’은 다른 공예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감청자 특유의 경제성과 제작의 용이성은 다른 공예품과 차별되는 장점으로, 바로 이 점 때문에 범자 진언을 새길 기명으로 청자가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판독하지 못한 자료들은 추후 잔존 상태가 양호한 자료가 보고된다면 새로운 유형을 수립하여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진언, 범자, 밀교, 고려청자, 육자대명진언

고려 후기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의 해석과 의미

이준광(李準光)
리움미술관 학예연구원

I. 머리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던 만큼 불교문화가 반영된 청자가 다수 전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 여래, 보살, 나한, 권속 등을 형상화한 상형 청자는 청자와 불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¹ 향완, 정병, 종과 같은 의례용 기종들은 금속공예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품질의 청자로 변안되었다. 고려청자와 불교와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는 문양과 장식기법이 청자와 불화에서 공유되는 현상에 집중하여 다루어진 바가 있다.²

그러나 고려 후기 사회가 원(元) 간섭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청자와 불교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원 불교의 색채가 고려 불교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밀교적 의식이 담긴 새로운 고려 청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 적용된 새로운 밀교적 요소로는 범자(梵字)로 구성된 명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범자는 범종, 향완, 동경, 기와 막새 등 다양한 불교미술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청자에서는 향완의 예도 있긴 하지만 특히 접시에 시문되어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 이 자료들은 파편인 형태로 몇 점 전할 뿐 완형인 것은 매우 드물다. 파편 자료의 경우 범자의 전모를 볼 수 없어 그 의미를 파악

1 국난, 천재지변 극복을 위해 몽고 침략기에 전국적으로 나한상을 제작했을 것이며, 이때 청자로도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정은우, 「강진 용혈암지 출토 청자불상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48(2017), pp. 295-326 참조.

2 고려청자와 불화와의 문양 공유에 관해서는 정우택, 「문양으로 본 고려불화와 청자」, 『고려청자와 종교』(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2), pp. 67-69; 청자의 화금 기법과 고려불화와의 영향 관계에 관해서는 전승창, 「고려후기 화금청자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5(2009), pp. 17-24 참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완형인 경우에도 ‘다라니’, ‘범자문’ 정도로 서술할 뿐 구체적인 해석을 더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 대한 1~4차 발굴조사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되어 범자명 상감청자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³ 이 자료들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한다면 판독이 어려웠던 기존 자료의 해석에 참고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틀 안에서 범자 명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범자 명문을 판독하여 해석을 더하도록 하겠다. 이 해석을 모은다면 일정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범자의 일부만 전하고 있어 의미를 알 수 없던 자료들 중 몇 점은 완성된 유형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제작 시기와 용도를 확인할 것이며, 종합적인 시각으로 미술사적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범자명 판독과 해석

범자명 상감청자 자료는 완형으로 5점 내외, 파편으로 20여 점이 공개되어 전한다. 본고에서는 완형 자료 2점과 파편 자료 13점의 범자명을 판독하고 구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⁴ 표에 제시하였듯 범자명들은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이 내재화된 비밀스럽고도 영원한 진리인 진언(眞言)을 표기한 것이었다.⁵ 이어지는 절(節)에서는 범자를 판독하여 진언을 제시한 뒤 이를 풀이하도록 하겠다.

3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강진군의 의뢰로 2019~2020년에 걸쳐 1~4차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청자요장(Ⅰ) 8호·23호·40호 발굴조사 보고서』(2021);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청자 요장 23호 발굴조사 보고서』(2023) 참조.

4 완형 자료라 하더라도 범자 부분이 수리된 것, 실견하지 못해 전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2점은 제외하였다. 남아있는 범자만으로는 전체를 추정할 수 없는 파편 자료 6점 또한 제외하였다.

5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주문은 眞言 또는 呪로 칭하고, 긴 주문은 眞言 혹은 陀羅尼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大日經』, 『金剛頂經』 등 고려시대에 유통되던 다양한 경전에서 범자 진언을 발췌하여 모은 『梵書總持集』에서는 판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주문을 眞言으로 통일하고 판각 공간이 부족할 경우 呪를 병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고려시대 당시에도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범자 주문을 眞言으로 통일해 칭하도록 하겠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김수연, 「민영규본 『梵書總持集』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사학』 54(2016), pp. 151-152 참조. 세 가지 용어의 미세한 차이에 관해서는 김무생(경정), 「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流通」, 『밀교학보』 7(2005), p. 24 참조.


유형	명문		상세		
단독 범자 (현존)	옴		범자	𑖀	
			로마자 표기	om̐	
			한문 표기	唵	
			언해 표기	옴	
			뜻	무량한 공덕과 진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머금은 진언의 어머니	
	람 / 하		범자	𑖡 𑖢	
			로마자 표기	raṃ ha	
			한문 표기	𑖠 賀	
			언해 표기	람 하	
			뜻	종자로는 금강어보살 종자로는 지장보살	
육자 대명 진언 +	1중 (중심)	단독 범자 (정법계진언)	범자	𑖀𑖡	
			로마자 표기	om̐ raṃ	
			한문 표기	唵𑖠	
			언해 표기	옴람	
			뜻	법계(法界)를 정화한다.	
	2중 (바깥)	육자대명진언	범자	𑖀𑖡𑖣𑖤𑖥𑖦𑖧	
			로마자 표기	om̐ mañi padme hūṃ	
			한문 표기	唵 麼 拏 鉢 訶 吽。	
			언해 표기	옴 마니 반메 흠	
			뜻	온 우주(om̐)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mañ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ūṃ)에게 그대로 실현될지이다.	
			경전	『불설대장엄보왕경』	
	진언 조합	1중	단독 범자 (정법계진언)	위와 동일	
		2중	육자대명진언	위와 동일	
		3중	감로수진언	범자	𑖀𑖡𑖢𑖣𑖤𑖥𑖦𑖧𑖨𑖩𑖪𑖫𑖬𑖭𑖮𑖯𑖰𑖱𑖲𑖳𑖴𑖵𑖶𑖷𑖸𑖹𑖺𑖻𑖼𑖽𑖾𑗀𑖿𑗁𑗂𑗃𑗄𑗅𑗆𑗇𑗈𑗉𑗊𑗋𑗌𑗍𑗎𑗏𑗐𑗑𑗒𑗓𑗔𑗕𑗖𑗗𑗘𑗙𑗚𑗛𑗜𑗝𑗞𑗟𑗠𑗡𑗢𑗣𑗤𑗥𑗦𑗧𑗨𑗩𑗪𑗫𑗬𑗭𑗮𑗯𑗰𑗱𑗲𑗳𑗴𑗵𑗶𑗷𑗸𑗹𑗺𑗻𑗼𑗽𑗾𑗿𑘀𑘁𑘂𑘃𑘄𑘅𑘆𑘇𑘈𑘉𑘊𑘋𑘌𑘍𑘎𑘏𑘐𑘑𑘒𑘓𑘔𑘕𑘖𑘗𑘘𑘙𑘚𑘛𑘜𑘝𑘞𑘟𑘠𑘡𑘢𑘣𑘤𑘥𑘦𑘧𑘨𑘩𑘪𑘫𑘬𑘭𑘮𑘯𑘰𑘱𑘲𑘳𑘴𑘵𑘶𑘷𑘸𑘹𑘺𑘻𑘼𑘽𑘾𑘿𑙀𑙁𑙂𑙃𑙄𑙅𑙆𑙇𑙈𑙉𑙊𑙋𑙌𑙍𑙎𑙏𑙐𑙑𑙒𑙓𑙔𑙕𑙖𑙗𑙘𑙙𑙚𑙛𑙜𑙝𑙞𑙟𑙠𑙡𑙢𑙣𑙤𑙥𑙦𑙧𑙨𑙩𑙪𑙫𑙬𑙭𑙮𑙯𑙰𑙱𑙲𑙳𑙴𑙵𑙶𑙷𑙸𑙹𑙺𑙻𑙼𑙽𑙾𑙿𑚀𑚁𑚂𑚃𑚄𑚅𑚆𑚇𑚈𑚉𑚊𑚋𑚌𑚍𑚎𑚏𑚐𑚑𑚒𑚓𑚔𑚕𑚖𑚗𑚘𑚙𑚚𑚛𑚜𑚝𑚞𑚟𑚠𑚡𑚢𑚣𑚤𑚥𑚦𑚧𑚨𑚩𑚪𑚫𑚬𑚭𑚮𑚯𑚰𑚱𑚲𑚳𑚴𑚵𑚷𑚶𑚸𑚹𑚺𑚻𑚼𑚽𑚾𑚿𑛀𑛁𑛂𑛃𑛄𑛅𑛆𑛇𑛈𑛉𑛊𑛋𑛌𑛍𑛎𑛏𑛐𑛑𑛒𑛓𑛔𑛕𑛖𑛗𑛘𑛙𑛚𑛛𑛜𑛝𑛞𑛟𑛠𑛡𑛢𑛣𑛤𑛥𑛦𑛧𑛨𑛩𑛪𑛫𑛬𑛭𑛮𑛯𑛰𑛱𑛲𑛳𑛴𑛵𑛶𑛷𑛸𑛹𑛺𑛻𑛼𑛽𑛾𑛿𑜀𑜁𑜂𑜃𑜄𑜅𑜆𑜇𑜈𑜉𑜊𑜋𑜌𑜍𑜎𑜏𑜐𑜑𑜒𑜓𑜔𑜕𑜖𑜗𑜘𑜙𑜚𑜛𑜜𑜝𑜞𑜟𑜠𑜡𑜢𑜣𑜤𑜥𑜦𑜧𑜨𑜩𑜪𑜫𑜬𑜭𑜮𑜯𑜰𑜱𑜲𑜳𑜴𑜵𑜶𑜷𑜸𑜹𑜺𑜻𑜼𑜽𑜾𑜿𑝀𑝁𑝂𑝃𑝄𑝅𑝆𑝇𑝈𑝉𑝊𑝋𑝌𑝍𑝎𑝏𑝐𑝑𑝒𑝓𑝔𑝕𑝖𑝗𑝘𑝙𑝚𑝛𑝜𑝝𑝞𑝟𑝠𑝡𑝢𑝣𑝤𑝥𑝦𑝧𑝨𑝩𑝪𑝫𑝬𑝭𑝮𑝯𑝰𑝱𑝲𑝳𑝴𑝵𑝶𑝷𑝸𑝹𑝺𑝻𑝼𑝽𑝾𑝿𑞀𑞁𑞂𑞃𑞄𑞅𑞆𑞇𑞈𑞉𑞊𑞋𑞌𑞍𑞎𑞏𑞐𑞑𑞒𑞓𑞔𑞕𑞖𑞗𑞘𑞙𑞚𑞛𑞜𑞝𑞞𑞟𑞠𑞡𑞢𑞣𑞤𑞥𑞦𑞧𑞨𑞩𑞪𑞫𑞬𑞭𑞮𑞯𑞰𑞱𑞲𑞳𑞴𑞵𑞶𑞷𑞸𑞹𑞺𑞻𑞼𑞽𑞾𑞿𑟀𑟁𑟂𑟃𑟄𑟅𑟆𑟇𑟈𑟉𑟊𑟋𑟌𑟍𑟎𑟏𑟐𑟑𑟒𑟓𑟔𑟕𑟖𑟗𑟘𑟙𑟚𑟛𑟜𑟝𑟞𑟟𑟠𑟡𑟢𑟣𑟤𑟥𑟦𑟧𑟨𑟩𑟪𑟫𑟬𑟭𑟮𑟯𑟰𑟱𑟲𑟳𑟴𑟵𑟶𑟷𑟸𑟹𑟺𑟻𑟼𑟽𑟾𑟿𑠀𑠁𑠂𑠃𑠄𑠅𑠆𑠇𑠈𑠉𑠊𑠋𑠌𑠍𑠎𑠏𑠐𑠑𑠒𑠓𑠔𑠕𑠖𑠗𑠘𑠙𑠚𑠛𑠜𑠝𑠞𑠟𑠠𑠡𑠢𑠣𑠤𑠥𑠦𑠧𑠨𑠩𑠪𑠫𑠬𑠭𑠮𑠯𑠰𑠱𑠲𑠳𑠴𑠵𑠶𑠷𑠸𑠺𑠹𑠻𑠼𑠽𑠾𑠿𑡀𑡁𑡂𑡃𑡄𑡅𑡆𑡇𑡈𑡉𑡊𑡋𑡌𑡍𑡎𑡏𑡐𑡑𑡒𑡓𑡔𑡕𑡖𑡗𑡘𑡙𑡚𑡛𑡜𑡝𑡞𑡟𑡠𑡡𑡢𑡣𑡤𑡥𑡦𑡧𑡨𑡩𑡪𑡫𑡬𑡭𑡮𑡯𑡰𑡱𑡲𑡳𑡴𑡵𑡶𑡷𑡸𑡹𑡺𑡻𑡼𑡽𑡾𑡿𑢀𑢁𑢂𑢃𑢄𑢅𑢆𑢇𑢈𑢉𑢊𑢋𑢌𑢍𑢎𑢏𑢐𑢑𑢒𑢓𑢔𑢕𑢖𑢗𑢘𑢙𑢚𑢛𑢜𑢝𑢞𑢟𑢠𑢡𑢢𑢣𑢤𑢥𑢦𑢧𑢨𑢩𑢪𑢫𑢬𑢭𑢮𑢯𑢰𑢱

유형	명문		상세	
육자 대명 진언 + 진언 조합	1중	단독 범자 (정법계진언)	위와 동일	
	2중	육자대명진언	위와 동일	
	3중	보루각진언	범자	唵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 𑖦𑖫
			로마자 표기	om maṇi dhari hūṃ phaṭ
			한문 표기	唵 摩你 達哩 吽 鑠吒
			언해 표기	옴 마니 다리 흠 바닥
			뜻	오! 마니보주(摩尼, maṇi)를 수호합니다. (業을) 제거하고(hūṃ), 파괴하소서(phaṭ)
			경전	『광대보누각선주비밀다라니경』
	4중	구보살원주	범자	唵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로마자 표기	om sube pulabadani hara hara hūṃ,
			한문 표기	唵 蘇微布羅縛多寧訶囉訶囉吽
			언해 표기	옴 소미 보라바다네 하라하라흠
			뜻	아! 미묘하고 광대하고 넓은 선을 쌓아 두려움 없는 광명을 비추고자 합니다 흠.
			경전	『광대보누각선주비밀다라니경』
	1중	무량수여래십주	범자	唵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로마자 표기	om amṛta teje hara hūṃ
			한문 표기	唵 阿蜜栗哆 帝際 賀囉吽。
			언해 표기	옴 아므리다 데체 하라 흠
			뜻	오! 불멸(amṛta), 광명(teje) 주소서(hara) 흠.
			경전	『불설아미타경』
	2중	보루각진언 + 육자대명진언	위와 동일	
	3중	감로수진언	위와 동일	
	4중	멸악취진언	범자	唵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𑖀𑖦𑖫𑖜𑖦𑖫
			로마자 표기	om amogha virocana mahāmudrā maṇi padme jvala pravartāya hūṃ
			한문 표기	唵 阿謨伽 尾嚧左曩 摩賀 母捺囉 麼拏鉢納麼 入嚩囉鉢囉 嚩 嚧野 吽。
			언해 표기	옴 아모가 미로자나 마하 모느라 마니바느마 바라브라 말다야 흠
			뜻	아! 불공(不空, amogha) 비로자나불이시여! 대인(大印, mahāmudrā)을 가진 분이시여! 마니보주(摩尼, maṇi)와 연화(蓮花, padme)의 광명(jvala)을 비추어주소시! 흠!
			경전	『불공견삭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

1. 단독 범자 (현존)

본절(本節)에서는 범자 한 자만이 남은 자료를 다룬다. 단독 범자라 구분했지만 파편 자료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존’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이 범자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단독 범자였을 수도 있지만, 완형일 경우 다른 범자와 호응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 때문에 각 범자에 대해서는 단독 범자일 경우의 의미도 살피겠지만 완전한 형태일 때를 위한 여지도 남겨 두도록 하겠다.

1) 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범자 ‘’(옴, om, 唵)은 접시 편에서 1점, 향완 편에서 2점을 찾을 수 있었다. 접시는 내저면 중앙에 백상감의 이중 원문을 두르고 그 안에 흑상감으로 단독 배치하였다(도 1).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른 범자가 돌아가며 배치되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옴’은 별격일 가능성이 높다. 『진언집(眞言集)』 망월사본(望月寺本, 1800)에서는 ‘옴’을 모든 진언의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다.⁶ 즉, 무량한 공덕과 진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이 한 글자에 머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배치된 ‘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언으로서 최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향완에서의 ‘옴’도 접시와 같은 선상에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도 2, 3). 그러나 향완 특성상 노신(爐身) 측면을 돌아가며 배치된 다른 범자와 연속하여 또 다른 뜻을 완성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옴’은 진언의 맨 앞에 나오는 첫머리 범자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⁷



도 1. 청자상감 범자명 접시 편, 강진 사당리 출토, 고려 13~14세기, 현 높이 1.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청자상감 범자명 향완 편, 고려 13세기, 현 높이 11.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 청자상감 범자명 향완 편, 고려 14세기, 현 높이 7.9cm, 국립중앙박물관

6 『진언집』 망월사본(1800) “唵字。一切眞言之母.”; 1800년에 간행된 망월사본 『진언집』은 1777년 간행된 萬淵寺本을 수정하여 편찬한 것으로 당시 유통되던 진언집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서는 이태승·안주호, 『실답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서울: 글익는들, 2004), p. 87 참조.

7 이용진,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垵의 梵字 해석」, 『역사민속학』 36(2011), pp. 15-20.

이처럼 ‘옴’은 모든 진언 중 핵심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만큼 전체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며 파편 자료일 경우 완전일 때의 모습을 고려하여 폭넓은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2) 람, 하

람이 상감된 자료는 1점이 전한다(도 4). 원문 안에 온전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지만 다른 자료의 범자체에 근거할 때 ‘람’(람, ram, 嚩)으로 판독할 수 있다. 파편 자료의 형태만으로는 본래의 기종을 알기 어려워 이에 따른 동반 범자 또한 추론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고려시대 진언 활용 예를 고려할 때 ‘법계(法界)를 정화한다’라는 의미의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옴람’(옴람, om ram, 唵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람’은 다른 진언들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하’(하, ha, 賀)가 상감된 자료도 1점이 전한다(도 5). 5.0cm 이하의 아주 작은 잔편이지만 그 안에 이중 원문을 마련하고 흑상감으로 새긴 ‘하’가 잘 남아 있다. 향완 편으로 소개되었으나 크기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보고되어 있는 청동 은입사 향완의 노신부 범자에서도 ‘하’가 사용된 예는 없다.⁸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존종자(一尊種子)로서의 가능성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인데 이 경우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상징한다.⁹ ‘하’의 경우 보다 완성형에 가까운 유사 자료가 보고되어야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 청자상감 범자명 편, 고려 13세기, 현 길이 12.4cm, 고려청자박물관



도 5. 청자상감 범자명 편, 강진 사당리 출토, 고려 13~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8 고려 청동 은입사 향완 노신부 범자에 관해서는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p. 13-14; 고정룡·서영남,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垵의 新자료와 梵字 검토」, 『문화사학』 59(2023), p. 65 참조.

9 中村瑞隆·石村喜英·三友健容 編, 『梵字事典』(東京: 雄山閣, 1993), p. 272.

2. 육자대명진언과 기타 진언의 조합

1) 단독 범자(정법계진언) + 육자대명진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은 비록 완형은 아니지만 범자 진언명을 담은 원문 한 개가 파손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어 범자 관련 불교미술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자주 소개되었던 자료이다(도 6). 중앙을 1중(重), 바깥을 2중(重)으로 하여 보았을 때, 1중에는 앞서 살펴본 ‘𑖀’(람, raṃ)이 자리 잡고 있고, ‘람’의 12시 방향에 ‘𑖔’(옴, om)을 두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 𑖔’(om maṇi padme hūṃ, 唵麼呢鉢訖銘吽)을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했다. 이 진언은 고려대장경¹⁰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說大乘莊嚴寶王經)』 4권에 ‘육자대명다라니(六字大明陀羅尼)’로 전하는 것으로 경전에는 범자 없이 한문 음역만 적혀 있다. 그러나 『진언집』 망월사본(1800)에서는 이 진언을 ‘옴 마니 반메 흄’으로 읽고 있어 참고가 된다. 본래는 관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이 담겨 있는 진언이지만 점차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담은 공덕 성취 진언으로 정착하였다.¹¹ 또한 육도 중 생구제나 육바라밀(六波羅蜜)¹²의 실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적 차원의 기원이기도 하다.¹³ 이처럼 담고 있는 의미는 크지만 해석하자면 ‘온 우주(om)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maṇ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ūṃ)에게 그대로 실현될지어다’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구성의 또 다른 예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가 있다(도 7). 중앙의 ‘람’은 이중 원문으로 감싸 배치하고, ‘육자대명진언’을 이루는 범자는 각각 원문으로 구



도 6.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고려 13세기, 원 높이 3.5cm, 굽지름 7.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7.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 고려 13~14세기,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0 1236년(高宗 23)에서 1251년(高宗 38)까지 만들어진 再雕大藏經.

11 허일범,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 『회당학보』 6(2001), p. 55.

12 생사의 고탈을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피안에 이르는 여섯 가지 덕목.

13 허일범, 「봉은사 사천왕상 복장 진언중자 연구」, 『회당학보』 7(2002), p. 85.

14 대한불교진각종 밀교문화총람사업단, 『韓國의 六字眞言 옴마니반메흄』(서울: 진각종 해인행, 2018), p. 53.

분 지어 따로 배치했다. 다만 ‘𑖦’(흙, hūṃ)이 있어야 할 자리에 ‘ㄹ’(다, da, 哆)가 상감되어 있는데, 이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소한 범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육자대명진언’은 경전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중앙에 위치하여 이와 상응하는 듯이 배치된 단독범자 ‘𑖦’(람, raṃ)의 의미는 쉽사리 결론지을 수 없고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존종자로서 금강어보살(金剛語菩薩)을 상징하는 경우이다.¹⁵ 이 경우 관음보살의 본심을 담았다는 ‘육자대명진언’과 호응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둘째, 고려시대에 많이 채택된 ‘정법계진언’ ‘𑖦’(옴람, om raṃ)의 일부로 ‘육자대명진언’과 ‘옴’을 공유하는 경우이다.¹⁷ 셋째, 화광(火光)을 상징하며 광명의 근원 아미타불을 의미하는 경우이다.¹⁸ 즉,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시대 기와 등 다른 자료에서는 중앙에 아미타불의 종자자인 ‘𑖦’(흐리, hrīḥ, 紇利) 외에 ‘옴’과 반원구형 등을 나타내고 ‘육자대명진언’을 두른 예가 있어 중심의 표현이 아미타불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상의 세 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다른 고려 불교공예품의 사례를 참고하면 ‘람’ + ‘육자대명진언’의 조합에서 ‘람’은 ‘정법계진언’의 일부로 결과적으로 ‘정법계진언’ + ‘육자대명진언’으로 보인다.

2) 단독 범자(정법계진언) + 육자대명진언 + 감로수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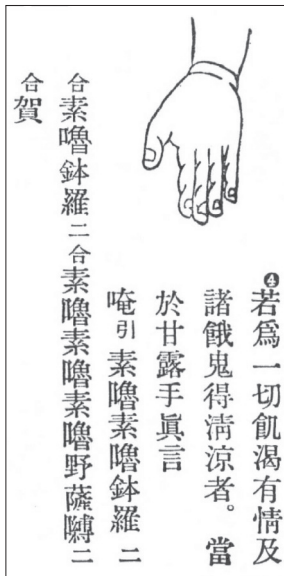
도 8. (左)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 고려 13~14세기, 높이 5.0cm, 입지름 17.8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右)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 고려 13~14세기, 현 지름 7.9cm, 무등요전시관

15 中村瑞隆·石村喜英·三友健容 編, 앞의 책(1993), p. 268.

16 금강어보살은 금강만다라의 16대 보살의 하나로 중생들의 망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𑖦’(람, raṃ)을 금강어보살의 종자자로 이해한 견해에 관해서는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 31 참조.

17 고려 공예품 중에는 ‘𑖦’(옴, om)을 한 번만 사용하고, ‘𑖦’(람, raṃ)을 연결하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엄기표,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58(2016), p. 65 참조.

18 귀정(허일범), 『육자대명왕진언의 의미와 역할』, 『회당학보』 20(2015), p. 271.



도 9.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의 감로수진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의 범자명은 그간 “다라니” 정도로 소개되었을 뿐 진언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도 8左). 1중과 2중은 앞서 살펴본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도 6)과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를 묶어 이중 원문 하나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3중에 16자의 범자가 상감되어 있는데 이 진언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¹⁹에 전하는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감로수진언(甘露水眞言)’이다(도 9).²⁰ 범자는 ‘**唵 素 嚕 鉢 羅 二 合 素 嚕 素 嚕 素 嚕 野 薩 囉 二**’ (om surūsurū prasurū prasurū surū surūya svāhā, 唵素嚕素嚕鉢羅素嚕鉢羅素嚕素嚕素嚕野薩囉賀)²¹로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소로소로야 스바하’로 읽으며 ‘아! 흐르게 하소서(suru), 흐르게 하소서, 끝없이(pra) 흐르게 하소서, 끝없이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로 해석할 수 있다.²² 다만 본래 진언에서 후반부의 마지막 ‘소로’ 하나를 생략하여 경전보다 두 자 적게 구성하고 있다.

이 완형 청자 접시의 범자 진언명이 판독됨에 따라 그간 판독이 불가능했던 무등요전시관 소장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도 똑같은 유형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도 8右). 비록 온전히 남아 있는 범자는 한 자뿐이지만 방향을 정치시켜 비교해 보면 1중에 ‘**𑖦**’(람, ram)이 있고 그 6시 방향으로는 2중을 구성하는 ‘육자대명진언’의 네 번째 글자 ‘**𑖥**’(파드, pad)가 있다. 이를 백상감의 원문으로 두르고 그 바깥으로 ‘감로수진언’이 상감되었는데 6시 방향에 아홉 번째 범자 ‘**𑖥**’(프라, pra)의 일부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 접시의 완형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접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3중 구성의 접시였음을 알게 되었다.

3) 단독 범자(정법계진언) + 육자대명진언 + 보루각진언 + 구보살원주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편〉은 위와 같은 1·2중 구성에 3중과 4중에 2개의 진언이 더해져 전체를 이루는 구성이다(도 10). 접시 편은 약 1/3만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진언의









19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大正藏 20, no. 1064:117-119).

20 이 자료의 3중에 위치한 ‘감로수진언’을 ‘멸악취진언’으로 誤記했던 것을 바로잡는다. 이에 관해서는 이준광, 「〈청자상감 진언문 접시 편〉의 梵字 해석」, 『강진 사당리 청자 요장 23호 발굴조사 보고서』(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3), p. 147.

21 경전에는 진언의 한문 표기만 실려 있다. 로마자 표기는 안영희, 「진언의 한글 표기법 연구—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 242에서 인용.









22 언해 표기는 『진언집』 망월사본(1800)을 따왔고, 뜻은 문상현(정각)·김연미, 『觀音 42手呪 및 『오대진언』의 성립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31(2021), p. 207에서 인용.

시작과 끝에 위치하는 ‘

3중 판독에는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유물 중 하나인 『범서총지집(梵書總持集)』(1156)이 참고가 된다. 여기서는 8자로 구성되면서도 접시 편의 범자를 포함하는 진언이 ‘보루각진언(寶樓閣眞言)’이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를 단서로 출처가 되는 경전을 찾아보면 ‘보루각진언’은 본래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되어 있는 『광대보루각선주비밀다라니경(廣大寶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에 있는 심수심주품(心隨心呪品)의 수심주(隨心呪)였다.²³ 이를 종합하면 3중의 ‘보루각진언’은 ‘       ’(om maṇi dhari hūm phat, 唵摩你達哩吽鑊吒。)으로 ‘옴 마니 다리 흠 바닥’으로 읽으며 ‘오! 마니보주(摩尼, maṇi)를 수호합니다. (業을) 제거하고(hum), 파괴하소서(pha)’로 해석할 수 있다.






도 10.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 편, 고려 13~14세기, 높이 5.2cm, 입지름 18.8cm, 굽지름 7.6cm, 고려청자박물관

다음으로 4중의 진언은 추리해 낸 글자 수 단서와 남아 있는 4개의 범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두 개의 조건을 고려할 때 ‘구보살원주’로 판단했다. 이 진언은 다른 불교미술품에서는 용례가 없지만 3중의 ‘보루각진언’과 같은 경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함께 시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진언을 완성하면 ‘       ’(om sube pulabadani hara hara hūm, 唵蘇微布羅縛多寧訶囉訶囉吽。)이며 ‘옴 소미 보라바다네 하라하라흠’으로 읽을 수 있다. 그 뜻은 경전에 근거할 때 ‘아! 미묘하고 광대하고 넓은 선을 쌓아 두려움 없는 광명을 비추고자 합니다’이다.

4) 무량수여래심주 + [보루각진언 + 육자대명진언] + 감로수진언 + 멸악취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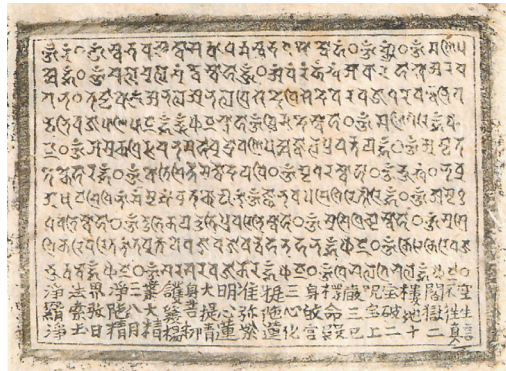
강진 사당리 3·4차 발굴조사 지역 중 2호 건물지 중정에서 출토된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 편〉은 다섯 개의 잔편을 붙여 복원한 것이다(도 11). 완형의 1/3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지만 본래 크기를 추정하는데 무리는 없다.

1중은 결실 부위가 많아 범자 2자 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2중~4중에 ‘  ’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얻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진언은 ‘무

23 이 경전은 『大寶廣博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의 異譯本이며, 『보누각경』, 『선주비밀경』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도 11. 청자상감 진언문 접시 편 내저면, 고려 13~14세기,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2호 건물지 중정 출토, 높이 4.7cm,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발굴



도 12. 이십이진언목판, 고려 14세기, 9.3×11.2cm,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량수여래심주(無量壽如來心呪)이다. 이 진언은 고려대장경의 『불설아미타경』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불설아미타경』 광흥사본(廣興寺本, 1525)의 부록과 『진언집』 망월사본(1800)에 전하고 있다. 『진언집』에서는 이 진언이 ‘**唵 𑖀𑖦𑖫𑖞𑖞𑖫𑖞 𑖀𑖦𑖫𑖞𑖞𑖫𑖞 𑖀𑖦𑖫𑖞𑖞𑖫𑖞**’(om amṛta teje hara huṃ, 唵阿蜜栗哆帝際賀囉吽)으로 표기되어 있다. 글자 수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세 번째 범자에서 접시 편과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소장 <이십이진언목판(二十二眞言木版)>이다(도 12).²⁴ 이 목판에는 ‘미타(彌陀)’라는 제목으로 ‘무량수여래심주’가 ‘**唵 𑖀𑖦𑖫𑖞𑖞𑖫𑖞 𑖀𑖦𑖫𑖞𑖞𑖫𑖞 𑖀𑖦𑖫𑖞𑖞𑖫𑖞**’(om amṛta teje hara huṃ, 唵阿蜜栗哆帝際賀囉吽)으로 판각되어 있는데 세 번째 범자의 표기가 접시의 상감 범자와 동일하다. 즉, 1중의 진언은 아미타불의 마음을 깨닫는 진언 ‘무량수여래심주’였다. 이 진언은 ‘옴 아미리다 데체 하라 흠’으로 읽으며, ‘오! 불멸(amṛta), 광명(teje) 주소서(hara) 흠.’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중과 3중에서는 앞서 다룬 3개의 진언이 배치된 것으로 판단했다.²⁵ 4중의 진언은 ‘**唵**’(옴, om)으로 시작해 ‘**𑖀𑖦𑖫𑖞𑖞𑖫𑖞**’(흠, hūm)으로 끝날 것, 23~24자로 구성될 것, 두 번째 범자가 ‘**𑖀**’(아, a, 阿)일 것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진언은 『불공견삭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 1권에 전하는 ‘멸악취진언(滅惡趣眞言)’이다. 여기서 악취란 악업을 지으면 죽은 뒤에 나는 지옥이나 축생, 아귀, 아수라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멸악취진언’은 죄악으로 인한 암흑을 비추어 죽

24 <이십이진언목판>은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왼쪽부터 횡으로 범자 진언을 판각하였으며, 범자의 끝에는 ‘ㅇ’ 모양을 각하여 구분을 해 두었다. 목판의 맨 아래에는 각 범자 진언의 제목을 간략화하여 한자로 적어 두었다. 이 목판에 관해서는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韓國의 傳統 陀羅尼: 東齋文庫 所藏資料 特別展』(경주: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4), p. 8 참조.

25 2중은 ‘보루각진언’과 ‘육자대명진언’이 한 공간을 공유한다고 보았는데, 이 추론에 관해서는 이준광, 앞의 보고서(2023), pp. 138~140 참조.

마니바ᄌᆞᆫ ᄒ바라ᄑ라 말다야 흙'으로 읽으며 ‘아! 불공(不空, amogha) 비로자나불이시여! 대인(大印, mahāmudrā)을 가진 분이시여! 마니보주(摩尼, maṇi)와 연화(蓮花, padme)의 광명(jvala)을 비




도14중 도14左 / 도14右 비결을
도14右 연필

26 경전에는 진언의 한문 표기만 실려 있다. 로마자 표기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遊心安樂道』의 표기를 인용. (<https://kabc.dongguk.edu/>)

추어주소서! 흠!’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이로써 이 자료의 완형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도 13).

이 판독을 통해 사당리 23-1호 요지 선별장에서 출토된 2점의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접시편>도 ‘멸악취진언’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었으며(도 14左, 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당리 ‘가’구역 출토 <청자상감 범자 진언명 편>도 가장 끝줄과 그 안쪽에 ‘멸악취진언’+‘감로수진언’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유형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도 14右).

3. 범자체

범자는 인도계 문자의 총칭이기 때문에 그 세부를 살펴보면 실담(悉曇, Siddham), 나가리(Nagari), 란차(Lan tsha), 티베트(Bod ying) 문자로 상세히 나눌 수 있다.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자료들은 이 범자체 중 공통적으로 실담 범자를 사용했다. 접시의 진언들은 『범서총지집』 해인사본(1156), <이십이진언목판>, 『진언집』 망월사본(1800), 『오대진언(五大眞言)』과 동일한 범자체로 쓰여 있었다. 단, 고려대장경에서는 해당 진언들의 한자 표기만 있을 뿐 범자는 쓰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대장경 중 범자가 쓰인 다른 문헌들이 있어 참고가 된다.²⁸ 그중에서도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瑜伽金剛正經釋字母品)』(유가석)은 고려시대 실담 범자의 온전한 모습을 가장 잘 보이는 문헌이다. 그리고 『불설우보다라니경(佛說雨寶陀羅尼經)』(우보다라니)은 경론의 내용을 실담 문자로 온전하게 판각한 것이며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 사십이자관문(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42자문)은 그 발음을 로마자로 분명하게 해독하고 그 성격이 밝혀져 있는 문헌이다.²⁹

표 2. 범자 ‘**ㅅ**’(아, a, 阿) 표기 비교

	청자 편	범서 총지집 (1156)	고려대장경(1236-1251)			22진언 목판 (14세기)	진언집 (1800)	란차
			유가석	우보다라니	42자문			
표기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표 2)와 같이 이를 모두 비교해 보면 같은 발음이어도 약간의 표기 차이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고려대장경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그러므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자료들의 범자체 또한 고려대장경과 그 궤를 같이하는 실담 범자임을 확정할 수 있다.

27 언해 표기는 『진언집』 망월사본(1800)을 따랐고, 해석은 種智院大學密教學會 編, 『梵字大鑑』(東京: 名著普及會, 1983), pp. 547-548에서 인용.

28 이태승, 「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대하여」, 『인도철학』 32(2011), p. 174.



29 이태승, 앞의 논문(2011), pp. 175-177.

30 고려대장경 실담 범자의 문헌별 대조와 로마자 발음으로의 대입, <이십이진언목판>과 『진언집』 망월사본(1800)과의 비교는 이태승, 앞의 논문(2011), pp. 175-185 참조.

Ⅲ. 제작 시기와 용도

1. 제작 시기

먼저 <청자상감 범자명 향완 편>의 단독 범자의 경우 청동 은입사 향완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진언이 입사된 향완은 가장 시기가 앞선 표충사 소장 <대정(大定) 17년명 청동 은입사 향완>(1177)에서부터 시작하여 원 지정(至正) 연간(1341~1370)의 여러 향완에 이르기까지 원문 안에 독립된 범자를 배치하는 일관된 형태를 보인다. 때문에 단독 범자 상감청자 편 자료들을 청동 은입사 향완과 단순 비교하여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문 구성이 대범하고, 범자 또한 크며, 명확하게 상감된 점(도 2), 범자 주변을 채운 역상감의 정선됨을(도 4) 고려하면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크기가 작고, 상감 선이 정돈되지 못하고 범자의 크기도 작아질 경우(도 3) 시기가 늦어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육자대명진언’과 다른 요소들이 결합된 파편 자료들의 제작 시기를 살펴보겠다. 고려에서 ‘육자대명진언’은 1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³¹ 이 진언이 입사된 불교공예품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풍(正豐) 2년명 범종>(1157)과 표충사 소장 <대정 17년명 청동 은입사 향완>(1177)이 있어 12세기 중반에는 문화적으로도 널리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범종에서는 ‘’(옴 카라테야 스바하, om karateya svāhā, 唵迦囉帝野莎賀)의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 향완은 ‘’(옴 아훔 흐리, om a hūṃ hrīḥ)의 최상의 의미를 지닌 4개의 범자와 결합하였고, 동경과 기와에서도 다른 진언들과 결합하고 있다.³² 이것을 고려할 때 고려청자의 범자 진언명 또한 ‘육자대명진언’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진언들이 더해지는 형식으로 확장하며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다룬 청자 자료는 모두 이와 같은 전개를 따랐기 때문에 자료 간의 선후 관계를 알기 위해 다른 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이 각 범자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여러 범자로 구성된 진언을 등글게 배치하는 것을 자륜진언(字輪眞言) 방식이라 하는데,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준제진언명경(准提眞言銘鏡)>처럼 3중의 원을 배치하고 그 안에 4개의 진언을 배치한 예가 이미 원대에 있고(도 15),³³ 고려에서도 향완, 기와 등에 찾아볼 수 있는 등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31 10세기 말 북송에서 ‘육자대명진언’이 담긴 『大勝莊嚴寶王經』이 번역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1251년 완성된 고려대장경에 이 경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이른 11세기 중반 遼로부터 대장경이 들어올 때 이미 전래되었거나, 늦어도 11세기 말에는 북송, 요와의 교류 속에서 전래되었다고 본다. 이 견해에 관해서는 김경집, 「육자진언의 전래와 전개양상」, 『회당학보』 23(2018), pp. 111-114 참조.

32 불교 금속공예품을 비롯하여 석조물, 기와 등에서 다양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각주 55 참조.

33 박진경, 「准提修行儀軌와 儀式具로 제작된 銅鏡」, 『불교미술사학』 24(2017), p. 155; 허일범, 「高麗·朝鮮時代の 梵字文化研究」, 『회당학보』 5(2000), pp. 58-59 참조.



도 15. 준제진언명 경, 원,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범자 진언 배치법이다.³⁴ 이처럼 13~14세기 공예품에서는 동심원 구조에 복수의 진언을 두는 자륜진언 방식이 확인되고 있어 청자 자료들의 제작 시기를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다만 이미 『범서총지집』 해인사본(1156)에서 하나의 진언을 2중에서 7중까지 구성된 동심원에 적고 있어 시기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앞서 판독해 낸 ‘감로수진언’이다. ‘감로수진언’이 있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는 730년~744년에 불공

(不空)이 번역하여 이미 고려에 전해져있었지만 고려대장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12세기에 고려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 『천광안관자재보살비밀법경(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에 언급된 40관음에 따른 40수법(手法)은 수주(手呪: 진언별 손 모양) 성립의 근간이 되었고, 이에 따라 13세기 고려에서는 관음의 40수 진언만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범서총지집』 민영규본(1218)에는 ‘감로수진언’이 포함된 40수 진언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그리고 이보다 시기가 늦은 서산 문수사 금동 여래 좌상 복장 유물에도 ‘감로수진언’이 포함된 「진언, 다라니」(1346) 낱장이 발견되었다. 이 낱장은 『오대진언』의 한 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485년 조선 왕실에서 간행된 『오대진언』에는 ‘감로수진언’이 추가되어 총 42주가 완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언, 다라니」(1346) 낱장은 40수주에서 확장된 42수주 및 수인도를 전하는 『오대진언』이 이미 14세기 전반에 성립하여 유통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³⁷ 그렇다면 ‘감로수진언’은 1218년 이후 14세기에 걸쳐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자 배치 방식과 ‘감로수진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범자 진언명 청자시기는 13~14세기로 넓게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자 자료를 검토하면 접시 내저면은 넓고 편평하며 끝에서 급히 접혀 올라가 입술에서 외반된다. 외측면에 다른 상감 문양은 없으며, 접지면까지 꼼꼼히 시유되어 있다. 굽바닥에 규석 받침 하나가 크게 남아 있고, 접지면에는 도침에 일부 붙었던 흔적도 남아 있다. 접시의 특징과 전술한 검토를 함께 고려할 때 접시는 13세기 말~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34 엄기표,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58(2016), p. 65.

35 옥나영, 「『五大眞言』 千手陀羅尼 신앙의 배경과 42手 圖像」, 『규장각』 56(2020), p. 39; 문상련(정각)·김연미, 앞의 논문(2021), pp. 193-197.

36 김수연, 앞의 논문(2016), pp. 163-164, 174.

37 문상련(정각)·김연미, 앞의 논문(2021), pp. 197-202 참조.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육자대명진언’에 결합한 진언의 수가 많아 다중의 동심원 방식으로 배치될 경우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𑖦’(람, ram)과 ‘보루각진언’이 결합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동물문직은릉(動物文織銀綾)>(1302)(도 16)의 예와 같이 같은 시기에도 2중의 진언이 혼용되고 있어 단순히 결합된 진언 수와 동심원 방식의 수만으로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덧붙인다.



도 16. 동물문 직은 견직물과 진언인, 고려 1302년, 29.7×27.9cm, 온양민속박물관

2. 용도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진언이라는 단서가 있어 의례 용기 중 하나라는 추론을 넘어 더욱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복수의 진언이 상감된 점시를 대상으로 각 진언의 의미를 재차 검토하고, 이 진언이 사용된 다른 불교미술품을 참고하여 용도를 추론하겠다.

첫째, ‘육자대명진언’과 ‘𑖦’(옴, om)을 공유한 ‘정법계진언’은 법계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윤보처박씨묘지명(尹瑤妻朴氏墓誌銘)>에 ‘육자대명진언’과 함께 활용된 사례가 있다. ‘무량수여래심주’는 아미타불의 마음을 깨닫는 진언으로 전술하였듯이 『불설아미타경』과 관련되어 망자(亡者)가 서방극락정토에서의 왕생을 바라는 진언이었다.

둘째, ‘보루각진언’과 ‘구보살원주’는 모두 파지옥의 공능이 있다고 설하고 있는 『광대보루각선주비밀다라니경』을 출처로 한다.³⁸ 경전에 따르면 “보루각진언”은 일단 송하면 모든 공포를 없애고, 나쁜 장애를 없애며, 공덕이 생기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여래의 경계를 성취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야말로 만능에 가까운 진언이지만 그 본뜻인 “업을 제거하고 파괴하소서”에 주목하여 해석해 보면 결국 지옥, 아귀, 축생 등 모든 악한 세계를 깨부수는 금강석 보주와 같은 진언인 것이다. ‘보루각진언’은 고려시대 다른 자료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양택춘 묘지(梁宅椿墓誌)>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도 17).³⁹ 1254년에 제작된 이 묘지의 뒷면에는 네 개의 범자 진

38 귀정(허일범), 앞의 논문(2015), p. 268.

39 허홍식, 『고려의 양택춘묘지』, 『문화재』 17(1984), pp. 236-245.



도 17. 양택춘 묘지 뒷면과 '보루각진언', 경기도 화성 출토, 고려 1254년, 너비 57.5cm, 길이 37.5cm, 두께 4.5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2774)

언이 제목과 함께 음각되어 있다. 우측부터 '상품상생진언(上品上生眞言)', '육자대명진언', '보루각진언', '결정왕생정토주(決定往生淨土呪)'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 '보루각진언'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상품상생진언'과 '결정왕생정토주'와 함께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특기해 두겠다.⁴⁰

셋째, '육자대명진언'은 공덕 성취 진언을 넘어 육도 중생구제의 의미도 스며있음을 앞서 언급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풍(正豐) 2년명 범종>(1157)에는 '육자대명진언'과 '파지옥진언'이 한 쌍을 이뤄 나타나고 있는데, 후기 범종에서는 '육자대명진언'만이 남게 된다. 이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파지옥진언'의 의미를 '육자대명진언'이 흡수하게 된 결과로 본다.⁴¹

넷째, '감로수진언'은 "일체 기갈 중생과 모든 아귀가 청량함을 얻게끔 하고자 하면 감로수진언을 외우라"⁴²라는 내용과 함께 경전에 실려 있는데 이는 시아귀회(施餓鬼會) 행법과 관련된 것이다.⁴³ 즉, '감로수진언'은 굶주린 아귀와 귀신의 목구멍에 음식이 흘러 들어가 마음껏 음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진언이기 때문에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아귀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베푸는 시아귀회 때 송했다.

다섯째, '멸악취진언'은 죽은 뒤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소멸시키고

40 이외에도 군산 장상리에서 '高山寺'명 기와와 함께 발견된 수막새, 충주 미륵대원지 출토 수막새,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動物文織銀綾>에 찍은 인장, 서울 수국사 황금보전 <목조 아미타여래 좌상> 다라니지 등에도 '보루각진언'이 보인다. '보루각진언'은 앞의 세 범자 '唵 嘛 呢'(옴 마니, om maṇi)가 '육자대명진언'과 같기 때문에 혼돈하여 오역된 경우가 많았으나 서로 다른 진언이므로 여기서 바로잡는다.

41 김무생, 「六字眞言 信仰의 史的 展開와 그 特質」, 『韓國 密敎思想 研究』(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p. 574; 귀정(허일범), 앞의 논문(2015), p. 269.

42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大正藏 20, no. 1064:117). "若爲 令 一切 飢渴有心得 清涼者 當於此手眞言."

43 문상련(정각)·김연미, 앞의 논문(2021), pp. 206-208.

광명으로 인도하는 진언이다. 원효가 정토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는 이 진언을 ‘관정광진언(灌頂光眞言)’이라 칭하며 “듣기만 해도 죄업을 없애고 죽은 사람에게 뿌리면 지옥에 있다가도 죄업이 제거되어 극락 국토에 왕생하고 다시 하위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⁴ 즉 이 진언에도 ‘파지옥진언’과 같은 공덕력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다른 진언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죽음 → 업 → 악한 세계(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계 등) → 파괴 → 구제 → 아미타불 → 서방극락정토 → 광명’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편들은 사찰에서 망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때 단(壇)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용도를 특정 지어 볼 수 있다. ‘감로수진언’으로 인해 시아귀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더욱 구체화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망자를 위한 불교 의례라는 것으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의례는 왕실 혹은 그 비호를 받고 있는 사찰 등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가 출토된 사당리 23호 요지와 ‘가’구역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이미 “御件”, “正陵”과 같은 명문이 있는 청자를 비롯하여 용, 이룡(虯龍), 봉황과 같이 왕실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문양이 있는 청자가 일괄되게 출토되어 왕실용 자기 생산지로 추정되어 왔기 때문이다.⁴⁵ 앞으로 개성 고려궁성을 비롯하여 왕실의 비호를 받던 사찰 등 소비지에서 범자 진언명 청자의 출토 사례가 누적된다면 생산지의 성격과 소비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미술사적 의미

1. 고려 밀교문화의 발현

개경 환도(1270) 이후 본격적인 원 간섭기에 들어선 고려는 원으로부터 제도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불교사적 측면으로 살펴보아도 고려 내에 밀교의 전통은 이미 존속하고 있었으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원대 불교가 전해지면서 고려의 밀교 신앙은 더욱 고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티베트 불교가 고려 불교 사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으며, 불교미술과 신앙행위, 즉 의식에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⁴⁶ 실제로 경전 조성, 불보살상이

44 원효, 『遊心安樂道』, 第七解妨除疑者; 정성준, 「밀교신앙의 형성과 특징」, 『한국 중세밀교사』(서울: 대한불교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9), pp. 120-121에서 재인용.

45 이희관,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 『해양문화재』 11(2018), p. 135; 이준광, 「고려 虯龍文 청자의 특징과 용도」, 『미술자료』 92(2017), p. 38; 이명옥, 「고려시대 수면(獸面) 장식 도자기 연구」, 『역사와 담론』 102(2022), pp. 40-42.

46 강호선, 「14세기 前後期 麗·元佛敎交流와 臨濟宗」(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p. 19-20; 김수연, 「원 간섭기 티베트 밀교와의 교섭」, 『한국 중세밀교사』(서울: 대한불교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9), p. 282에서 재인용.



도 18. 난백유 가채 범문 반, 원 14세기, 높이 4.3cm, 입지름 16.1cm, 굽지름 5.5cm, 상해박물관

나 탐, 향완과 범종에 영향관계를 보이는 유물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

도자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고려청자는 원대 자기로부터 기종, 문양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⁴⁷ 이로 미루어 볼 때 상감청자에 보이는 밀교적 요소인 범자 진언명은 고려 후기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대 자기를 살펴보면 의외로 범자명이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경덕진요와 용천요 청자에 범자가 소극적으로 활용된 예가 있으나 그마저도 란차 범자를 사용하고 있어 고려청자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도 18).⁴⁸ 오히려 중국은 고려청자보다 시기가 늦은 명대 초인 선덕(1426~1435)~성화(1465~1487) 연간인 15세기 청화백자에 범자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대 자기와 고려청자의 이러한 차이를 볼 때 고려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원대 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보다는 원 간섭기를 맞아 사회 전반에 확산된 원 불교문화의 분위기와 고려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던 밀교적 요소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⁴⁹

2. 개인적 밀교 확산의 증거

고려 사회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국가 단위의 불교행사가 자주 개최되었다. 그중에는 국가적 밀교 의례도 있었는데 해, 달, 별의 이상 운행에서 비롯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소재도량(消災道場), 국가를 위한 불정도량(佛頂道場), 즉위 의례로서의 관정도량(灌頂道場) 등이 대표적이다.⁵⁰ 그러나 무신 집권기와 몽골 침입기에 겪은 사회적 혼란은 밀교의 변화를 촉발시킨다. 너무 먼 단위의 국가 정치적 밀교 의례보다는 당장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개인적 밀교 의례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밀교 의례는 개설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⁵¹

47 김운정, 「高麗後期 象嵌青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49(2006), pp. 175-194.


48 刘昱午, 「元代梵文琛宝纹碗鉴赏」, 『寻根』 2013-1(2013),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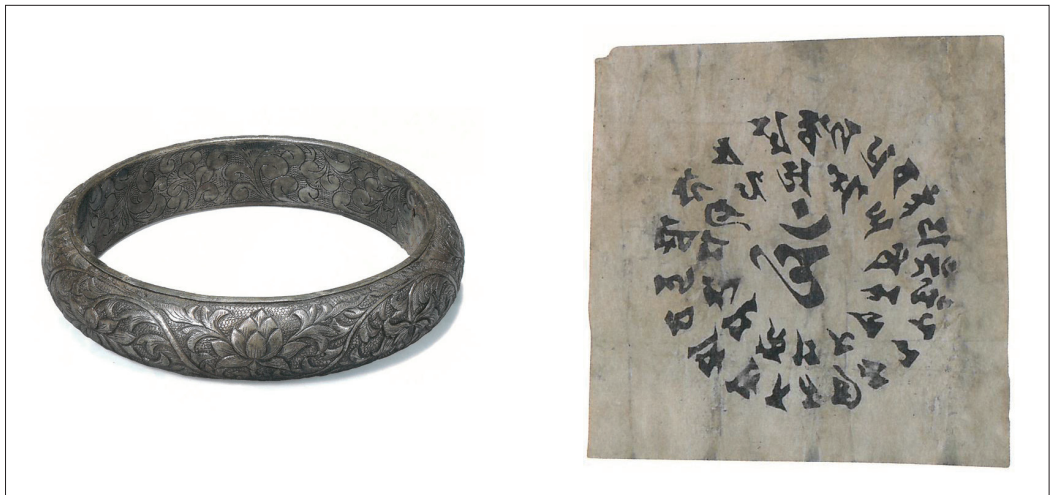
49 고려 출신 환관으로 원에서 資正院使를 지낸 姜金剛 등이 조성한 『金剛般若波羅蜜經』(印出 1339, 목각 1331, 보물, 개인소장)의 권말에는 '佛頂心陀羅尼'를 비롯한 다라니들과 여러 佛符가 수록되어 있다. 『金剛般若波羅蜜經』 권말에 다라니가 있는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이 판본과 같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은 원 간섭기에 고려의 전통적인 밀교 신앙이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일 것이다.

50 김수연, 『고려 사회와 밀교』(서울: 씨아이알, 2022), p. 175.

51 김수연, 앞의 책(2022), p. 303.

진언을 판독하고 용도를 추론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파지옥과 정토왕생을 의미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성격의 밀교 의례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밀교는 다라니 신앙의 확산과 정토 신앙과의 결합으로 결부된다. 14세기에는 승려들이 극락왕생과 파지옥을 신자 확보와 축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고려 말 불교계에서는 지옥과 극락을 강조하였다.⁵² 이처럼 개인의 현세 구복적인 기원이 성행했음은 전해지는 고려 후기 유물들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양택춘 묘지>에 진언을 새긴 예를 비롯하여, 순창 농소고분에서 출토된 목판에는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자로 ‘육자대명진언’과 ‘파지옥진언’을 반복적으로 써 극락왕생과 파지옥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⁵³ 이런 염원은 죽은 뒤가 아닌 일상에서도 성행하였는데 진언을 외우고 심지어 몸에 지니기만 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팔찌 속에 진언을 넣어 몸에 지니기도 했다.⁵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 연화당초문 팔찌와 다라니>(도 19)가 그 좋은 예인데 팔찌 안에서 나온 다라니의 중앙 ‘’(옴, om)에서부터 2중과 3중 일부로 이어지며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에 있던 ‘멸악취진언’이 미상의 진언과 결합한 형태로 적혀 있음을 판독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진언이 새겨진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또한 개인적 밀교 확산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9. 은제 연화당초문 팔찌와 다라니, 고려, 지름 9.6cm, 국립중앙박물관, 이견희 기증(건희3263)

52 김수연, 앞의 책(2022), pp. 315–317.

5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淳昌 雲林里 農所古墳』(2016), pp. 85–119.

54 정은우, 「한국 腹藏, 경전적 의미와 해석」, 『한국문화연구』 37(2019), p. 184.

3. 고려 공예품에서의 자리매김

진언이 있는 고려 불교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청자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각각의 연구를 통해 범자 진언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청자도 범자 진언명이 판독되었기 때문에 불교공예품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다른 공예품과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고려 시대 주요 공예품에 적용된 진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⁵⁵

표 3. 고려 공예품 속 진언과 범자체

종류	유물명	시기	범자		범자체
범종	정풍2년명 범종	1157년	상대	육자대명진언 × 2회	실담
			하대	파지옥진언	
	오어사 범종	1216년	중앙 위패	육자대명진언	실담
	연복사 종	1346년	천판	육자대명진언	란차
종신			오불진언+불정존승다라니	란차+티베트	
향완	고려 중·후기 각종	12세기 중반 ~ 14세기 말	육자대명진언+최상의 찬탄어구 계열 태장만다라 사불진언 아 옴 흐리히 계열		실담
동경	소형(10cm 미만)	13~14세기	단독범자 육자대명진언 불정심인(❧의 보주형 도상)		다수 실담 소수 란차
	육자대명진언+정법계진언 육자대명진언 준제진언				
	육자대명진언				
석조물	석당, 고분, 석탑 등	11~14세기	대불정다라니 존승다라니 아미타삼존종자진언+사천왕종자진언 대불정주, 삼밀진언		다수 실담 소수 란차

55 진언이 적용된 각종 공예품에 관해서는 허일범, 「高麗·朝鮮時代の 梵字文化 研究」, 『회당학보』 5(2000), pp. 45-66; 범종, 향완에 관해서는 이용진, 앞의 논문, pp. 7-39; 銅鏡에 관해서는 엄기표, 앞의 논문, pp. 35-82; 박진경, 앞의 논문, pp. 147-174; 석조물에 관해서는 엄기표,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 36(2011), pp. 41-81; 기와에 관해서는 엄기표, 「高麗~朝鮮時代 梵字銘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71(2014), pp. 153-220; 차순철, 「고려시대 진언기와 사례 검토」, 『중앙고고연구』 36(2021), pp. 39-72; 木棺에 관해서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16), pp. 85-119 참조.

종류	유물명	시기	범자	범자체
기와	고려기와 각종	14세기	육자대명진언 정법계진언 + 육자대명진언 정법계진언 보루각진언 람+보루각진언	다수 실담 소수 란차
목관	순창 윤립리 농소고분 목관	13~14세기	육자대명진언+파지옥진언	실담
묘지	양택춘	1254년	상품상생진언+육자대명진언+ 보루각진언+결정왕생정토주	실담
	윤보처박씨묘지명	1321년	구생제천궁진언+ 육자대명진언+정법계진언	실담

이 표를 바탕으로 먼저 범자체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모두 실담 범자를 사용하고 있음은 전술했다. 이와 달리 고려 1346년에 만든 연복사 종에는 티베트 문자와 란차 범자가 사용되었고, 강화 선원사지 출토 〈범자명 암막새〉에도 란차 범자가 사용되었다.⁵⁶ 동경과 석조물에서도 란차 범자는 발견할 수 있었으나 실담 범자에 비해 소수였다. 연복사 종은 원(元)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란차 범자가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 외 공예품에서도 란차 범자가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고려 장인들이 고려대장경에서 채택된 실담 범자를 주된 범자체로 채택하여 공예품 제작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⁵⁷ 이는 앞서 원대 범자명 자기와 고려청자의 차이를 근거로 고려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는 이미 고려에 내재하던 밀교적 요소가 투영된 결과물이었다고 본 해석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즉, 고려는 주된 범자체로 실담 범자를 사용했고, 고려청자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진언 조합에 관해 비교할 수 있다. 범종의 경우 12세기 말에서 13세기 말에 제작된 다섯 점이 전하고 있다.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육자대명진언’을 기본으로 하되 ‘파지옥진언’, ‘오불진언(五佛眞言)’,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가 결합된 경우가 있었다. 향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육자대명진언’에 최상의 찬탄 어구 계열이 결합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독 범자 조합으로 나타났다. 동경에서는 ‘육자대명진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크기에 따라 진언 조합이 이루어졌는데 중형 동경에서 ‘정법계진언’이 결합된 예가 있다. 석조물의 경우 소형 공예품에서 보이지 않던 진언들이 등장하였는데 청자와 직접적인 공통점은 없었다. 기와는 크기도 작고, 건축 부재였음을 고려할 때 작은 범자가 여럿 새겨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자에서 채택된 진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주로 ‘육자대명진언’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자와 동일하게 ‘𑖀’(람, raṃ)+‘육자대명진언’의 형태로 ‘정법계진언’을 더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정법계진언’ 단독

56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p. 28-29.

57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 29.



도 20. 범자 진언명 수막새, 군산 장상리 출토



도 21. 농소고분 목관 동측판 'L'구역 범자(복원도 삽입), 고려 14세기, (목관)길이 220cm, 너비 95.0cm, 높이 55.0cm, 두께 11.0cm,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발굴

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보루각진언’이 새겨진 막새 편도 발견되었는데, 중앙에 ‘람’(람, ram)과 결합하고 있었다(도 20). 목관과 묘지에서는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파지옥진언’, ‘상품상생진언’, ‘보루각진언’, ‘결정왕생정토주’, ‘정법계진언’의 조합을 보이고 있어 파지옥과 정토 신앙의 의미를 담은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과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도 21).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활용한 점, ‘람’(람, ram)과 ‘육자대명진언’을 결합하여 ‘정법계진언’을 표현한 점, ‘보루각진언’이 사용된 점이 다른 공예품과의 공통점이었다. 특히 채택된 진언, 배치 방법에서 기와와 유사성이 많았고, 파지옥이라는 의미에서는 범종, 목관, 묘지와 상통하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멸악취진언’과 ‘감로수진언’은 다른 공예품에서 발견하지 못해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만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멸악취진언’은 다라니 형태로 사용된 예가 있긴 했지만 공예품에서는 채택된 예가 없었다. ‘감로수진언’은 13~14세기에 걸쳐 ‘40수주’에 포함된 만큼 고려 공예품에 채택될 시간이 확보되고 있었다. 그 결과 청자에서 3점의 예를 남기고 있어 독특한 사례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구보살원주’와 ‘무량수여래심주’ 또한 다른 예가 없었으나 잔존하는 범자만으로 추론을 하여 제기한 진언들이기 때문에 이후 보고되는 자료에 따라 수정의 여지는 남겨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자에도 범자 진언명이 적용된 이유를 고찰해 고려 공예품 속에서 청자만의 위치를 규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공예품과 차별되는 청자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경제성과 제작의 용이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금속기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청자는 저렴한 재료를 이용해 다량 제작하여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도 재질의 특성상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로 생활 기명과 불교 기명이

다수 제작되었다.⁵⁸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가 향완과 접시로 제작된 것도 이와 같은 경제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망자를 위한 불교 의례에 사용할 경우 단순한 접시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은 범자 진언이 있는 접시가 필요했다. 청동은입사 향완처럼 금속 접시에 범자를 입사하는 것보다 다중에 걸쳐 여러 개의 범자를 입사하기에는 상감기법이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처럼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는 경제성과 제작의 용이성이라는 차별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고려 공예품 속에서도 특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현존 기준 범자 단독으로 등장할 경우와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파편 자료의 지름, 범자 간격 등을 고려하여 총 일곱 개의 진언을 해석해 냈다. 그리고 이들 진언은 고려대장경에서 사용한 실탐 범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파악했다.

진언을 등글게 배치하는 자륜진언 방식의 청자들은 범자 배치 방식과 ‘감로수진언’을 참고하여 13~14세기로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청자의 특징을 고려해 13세기 말~14세기 전반으로 제작 시기를 좁혀 볼 수 있었던 것도 성과였다. 각각의 진언들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하여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접시 편들의 용도도 추정해 보았다. 각 진언에는 업장(業障) 소멸과 파지옥, 극락왕생이라는 바램이 담겨 있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한 불교 의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아귀회와 같이 망자를 위한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청자의 제작지인 사당리 23호 요지와 ‘가’구역을 왕실용 자기 생산지로 보고, 왕실 혹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찰에서 소비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출한 정보들을 근거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이 갖는 도자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원의 자기들은 고려청자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적어도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고려에 내재되어 있던 밀교적 전통에 원대 불교의 자극이 더해진 결과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청자들은 개인적 밀교 확산의 증거 자료이기도 했다. 고려 후기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국가적 밀교 의례보다는 지옥을 면하고 정토에 가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이 성행하였고, 그 의미를 담은 진언들이 청자 접시에 상감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다른 공예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형태와 진언 배치에서는 기와, 막새와 유사성이 있고, 진언의 채택에 있어서는 범종, 목관, 묘지와 유사성을 보이며, ‘멸악취진언’과 ‘감로수진언’을 채택한 것은 다른 공예품과 차별되는 청자만의 특수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는 경제성과 제작

58 윤희봉, 「高麗靑磁에 보이는 金屬器皿의 影響」, 『미술사연구』 23(2009), pp. 229-239.

의 용이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공예품과 비교할 때 특별한 위치에 둘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해석되지 못했던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출토품의 수량이 적다는 점은 시기와 용도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한다. 이후 추가 보고되는 자료가 있다면, 범자 진언명 유형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기와 용도를 더욱 세밀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고려 밀교사와 진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자도 주요한 자료의 일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23. 10. 5. 심사개시일 2023. 10. 18. 게재 확정일 2023. 11. 23.

참고문헌

【경전】

- 『광대보누각선주비밀다라니경(廣大寶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 사십이자관문(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四十二字觀門)』
『불공견삭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不空羼索毘盧遮那佛大灌頂光眞言)』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說大乘莊嚴寶王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불설우보다라니경(佛說雨寶陀羅尼經)』
『유가금강정석자모품(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단행본】

- 김경집 외, 『한국 중세밀교사』, 서울: 대한불교진각종 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9.
김수연, 『고려 사회와 밀교』, 서울: 씨아이알, 2022.
대한불교진각종 밀교문화총람사업단, 『韓國의 六字眞言 오마니반메훔』, 서울: 진각종 해인행, 2018.
이태승·안주호, 『실답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서울: 글익는들, 2004.
中村瑞隆·石村喜英·三友健容 編, 『梵字事典』, 東京: 雄山閣, 1993.
種智院大學密教學會 編, 『梵字大鑑』, 東京: 名著普及會, 1983.

【보고서】

-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청자요장(Ⅰ) 8호·23호·40호 발굴조사 보고서』, 2021.
_____, 『강진 사당리 청자 요장 23호 발굴조사 보고서』, 202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淳昌 雲林里 農所古墳』, 2016.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도록】

- 강진청자자료박물관,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 特別展』, 2000.
_____, 『고려청자와 종교』, 2002.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陶器銘文』, 1992.
_____,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2018.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09.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韓國의 傳統 陀羅尼: 東齋文庫 所藏資料 特別展』, 경주: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청자靑瓷』, 2017.

【논문】

- 고정룡·서영남,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垸의 新자료와 梵字 검토」, 『문화사학』 59, 2023.
- 김경집, 「육자진언의 전래와 전개양상」, 『회당학보』 23, 2018.
- 김무생, 「六字眞言 信仰의 史的 展開와 그 特質」, 『韓國 密敎思想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 김무생(경정), 「眞言의 成立과 韓國의 流通」, 『밀교학보』 7, 2005.
- 김수연, 「민영규본 『범서총지집(梵書總持集)』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사학』 54, 2016.
- _____, 「원 간섭기 티베트 밀교와의 교섭」, 『한국 중세밀교사』, 서울: 대한불교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9.
- 김윤정,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49, 2006.
- 문상련(경각)·김연미, 「관음(觀音) 42수주(手呪) 및 『오대진언』의 성립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31, 2021.
- 박진경, 「准提 修行儀軌와 儀式具로 제작된 銅鏡」, 『불교미술사학』 24, 2017.
- 안영희, 「진언의 한글 표기법 연구—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엄기표,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 36, 2011.
- _____, 「寶珠形 唵(ᄃᆞᆫ, om)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 14, 2013.
- _____, 「高麗~朝鮮時代 梵字銘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71, 2014.
- _____,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58, 2016.
- 옥나영, 「『五大眞言』 千手陀羅尼 신앙의 배경과 42手 圖像」, 『규장각』 56, 2020.
- 윤희봉, 「高麗靑磁에 보이는 金屬器皿의 影響」, 『미술사연구』 23, 2009.
- 이명옥, 「고려시대 수면(獸面) 장식 도자기 연구」, 『역사와 담론』 102, 2022.
- 이용진,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垸의 梵字 해석」, 『역사민속학』 36, 2011.
- 이준광, 「고려 螭龍文 청자의 특징과 용도」, 『미술자료』 92, 2017.
- 이태승, 「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대하여」, 『인도철학』 32, 2011.
- 이희관,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 『해양문화재』 11, 2018.
- 정성준, 「밀교신앙의 형성과 특징」, 『한국 중세밀교사』, 서울: 대한불교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9.
- 정은우, 「한국 복장(腹藏), 경전적 의미와 해석」, 『한국문화연구』 37, 2019.
- 차순철, 「고려시대 진언기와 사례 검토」, 『중앙고고연구』 36, 2021.
- 허일범, 「高麗·朝鮮時代의 梵字文化 研究」, 『회당학보』 5, 2000.
- _____,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 『회당학보』 6, 2001.
- _____, 「봉은사 사천왕상 복장 진언중자 연구」, 『회당학보』 7, 2002.
- 귀정(허일범), 「육자대명왕진언의 의미와 역할」, 『회당학보』 20, 2015.
- 허흥식, 「고려의 양택춘모지」, 『문화재』 17, 1984.
- 刘昱午, 「元代梵文琛宝纹碗鉴赏」, 『寻根』 2013-1, 2013.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Celadon Inlaid with Sanskrit Mantras in the late Goryeo Dynasty

Lee Jun-kwang*

The celadon made in the Goryeo era, a time when Buddhism was flourishing in Korea, naturally contains many elements of Buddhist culture. Among them, inlaid celadon with Sanskrit inscriptions bears a close relationship with esoteric Buddhism. However, the research on deciphering the Sanskrit inscriptions has made little progress due to the small number of extant examples. However, the four recent excavations at the No. 23 kiln site in Sadang-ri, Gangjin have yielded new materials that allow the existing materials to b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inscrip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anskrit characters inlaid on the celadon were parts of mantras. Inscriptions where only one character is apparent cannot be deciphered, but scholars have revealed that others are written in the manner of a wheel mantra represent the “Mantra for Purifying the Dharma-Realm,” “Six-Syllable Mantra of the Vidyaraja,” “Sweet Dew Mantra,” “Jewel Pavilion Mantra,” “Mantra of the Savior Bodhisattva,” “Dharani of the Mind of the Budha of Infinite Life,” and “Mantra for Extinguishing Evil Rebirth.” Each mantra was written in Siddham script.

Second,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based on the arrangement of the inscriptions and the way the “Sweet Dew Mantra” is included in the “40 Hands Mantra.” In particular, the celadon pieces with a mantra inlaid in a concentric manner are dated to the late thirteenth and early fourteenth centuries based on their production characteristics.

Third, the interpretation of the inlaid mantras suggests that they all refer to the “Shattering Hell” and “Rebirth in the Pure Land.” Based on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some of these inlaid celadon wares with mantras may have been used in Buddhist rituals for the dead, such as the ritual for feeding hungry ghosts (施餓鬼會). Also, because the Sadang-ri No. 23 kiln site and the “ga” area of the site are believed to have produced royal celadon, it is likely that these rituals were performed at the royal court or a temple under its influence.

* Curator at the Leeum Museum of Art

Fourth, this inlaid Goryeo celadon with Sanskrit mantras was not a direct influence of the ceramics of Yuan China. It emerged by adopting Yuan Chinese Buddhist culture, which was influenced by Tibetan Buddhism, into Goryeo Korea's existing esoteric practices.

Fifth, the celadon wares inlaid with a Sanskrit mantra reveal a facet of the personal esoteric rituals that prevailed in late Goryeo society. Changes in esotericism triggered by the desire for relief from anxieties can be exemplified in epitaph tablets and coffins that express a shared desire for escaping hell and being born again in paradise.

Sixth, the inlaid celadon with Sanskrit mantras shares some common features with other crafts. The similarities include the use of Siddham Sanskrit, the focus on Six-Syllable Mantra of the Vidyaraja, the correspondence with the contents of the mantras found on Buddhist bells, wooden coffins, and memorial tablets, and their arraignment in a similar manner with rooftil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Mantra for Extinguishing Evil Rebirth and the Sweet Dew Manta have not yet been found on other craftworks. I believe that the inscriptions of Sanskrit mantras are found mainly on inlaid celadon vessels due to their relatively low production cost and efficiency.

Keywords: Mantra, Sanskrit, Esoteric Buddhism, Goryeo celadon, Six-Syllable Mantra of the Vidyaraja

